

이해조의 문학사적 위상의 재정립

의관은 의미없는 벼슬명칭을 붙이는 풍토에서 비롯

3. 이해조의 친일 의혹에 대한 변명
이해조의 생애에서 우리가 친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

동농 이해조를 위한 몇 가지 변명 ③

홍정선

인제대교수, 문학기자생사 공동대표



그러나 이 사실을 두고 당당한 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친일파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시기...

다음으로 제일사학자인 강동진씨는 이해조가 관여한 '대동사 문화(大東史文會)'란 단체가 친일단체이며, 이해조가 편집위원으로 있었던 '시정(詩情)'이란 잡지...

이해조의 이름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영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시기 이해조의 행적은 이런 단체의 뒤에서 일본이 어떻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는가와 관련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의 의관(議官) 벼슬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관이란 제도는 고종 32년 1985년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회의체를 폐지하

고 중추원의회의로 대체하면서 만든 직제의 명칭입니다. 여기에 정치, 법률, 이재 등에 밝은 사람들을 등용하여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수십 명의 의관을 임용했지만 실제로는 의도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조는 1907년 '제국신문' 기자로 입사하고, 또 같은 해에 '대한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애국계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해조가 관계한 이 기관과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련군주국을 지향하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국민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의관'에 대해 이해조도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관직자 명단 어디에서도 이해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의관 벼슬을 했다면 그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시기가 되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의관'이란 명칭은 당시 '의관'이란 벼슬 이름을 적당히 사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의관'이란 명칭은 당시 가장 쉽게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벼슬이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집안 사람이 죽었을 경우 '학생(學生)'으로 비명을 쓰는 것이 민망해서 의미 없는 벼슬 명칭을 붙이는 풍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

자/유/기/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②

이스라엘은 아랍제국이 이기기 힘든 상태

그러나 불행하게도 BC600년경에 신바빌로니아에게 유다 왕국이 점령된 후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다가 다행히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헤롯이라는 괴뢰 왕을 세워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가 잠시 소홀한 틈을 보이자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저항하였으나 결국 힘의 열세로 실패하여 해외로 추방되어 졌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근 2000년 동안이나 고국을 등지고 집시 생활을 하게 했던 마지막 비극의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성서의 구약시대를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느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독특한 생활을 하여왔다. 이러한 힘든 역사를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기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자 이들은 정신을 재무장하고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으려 국력을 강화하고 해외 유대인들은 강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민에 승부가 갈라져 6일 전쟁이라고도 한다.

시리아가 이스라엘 마을 등에 대하여 포격을 하자 이스라엘 공군이 그 보복으로 시리아 미그기 6대를 격추하자 나세르의 시나이 국경부근에 주둔해 있던 이집트 군대를 동원하여 참전하였다. 전쟁의 결과는 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제공권을 확보하여 이집트 공군을 궤멸하고 구에루살렘시와 시나이반도,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확보하였다.

3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날은 유대인의 성일이 였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스라엘의 시리아 침공과 수에즈운하 서안으로의 반격으로 전쟁은 심겁게 끝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휴전에 서명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근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전쟁을 종식시키는 캄프데이비드 협정을 맺고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전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했다.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도 수립됐다.

네 번의 중동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스라엘은 아랍제국이 이기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단단히 무장된 정정력은 이미 1970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한 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었다. 중동전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이나 영국등지에 많은 대학에서는 아랍계 학생들과 유대인 학생들이 동시에 휴학을 했다. 유대인학생들은 조국의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였고 아랍계 학생들은 혹은 고국에서 전투에 참여해달라는 통지서가 올까봐 숨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이미 중동전은 끝이 난거라고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조국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인 수많은 해외 동포가 있었다. 특히 유대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미국은 노골적으로



남충현 노안영역기자단장

전쟁의 원인을 하마스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전쟁의 진행사항은 예측 그대로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완전 승리이며 그 결과도 그럴 것이다. 이번 전쟁의 양측 군사력을 보면 왜 하마스가 어려운 전쟁을 비켜나가지 않고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육해공군을 합쳐 18만 명이고, 하마스는 불과 2만명이다. 이스라엘은 탱크 2,400대, 지주포 1,060문, 장갑차 7,000대, 전투기 520대인데 반하여 하마스는 게릴라전에서도 가능한 단거리 로켓 수 천발, 중거리미사일 다수, 대전차미사일 다수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동등한 전쟁이 되겠는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일이다. 가자지구는 성전에서의 죽음을 더 없는 신에 대한 은총으로 생각하는 아랍전사들의 휴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이미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아비규환의 지역이 된지 오래였다.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가자지구를 육해공 삼면에서 공격하고 압박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당당히 승리의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전쟁에 대한 양측의 이유는 모두 다 정당하다고 본다.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서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했던 것이다. 한번 불붙은 전쟁은 끝을 보아야 끝날듯하다. 유엔이 양쪽이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한 쪽은 성전 때문에 끝없는 평행선만 달릴 뿐이다.

전쟁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모든 인류가 애써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파괴해도, 지금처럼 1,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그 행위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학자들은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에 자국의 정책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정복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이 살아 가는 곳에서는 절대 힘의 논리만이 최고의 진리이며 정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왔고, 그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힘만이 필요하지도 모른다.

자/유/기/고

조개 속의 진주 캐기

"확실화된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차별화된 가치와 재능을 찾도록 아이들을 일깨워야 하지 않을까"

하늘이 파랗다. 기축년(己丑年) 새해 1월의 차가운 하늘이 마치 오월 하늘 같이 청량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온통 세상이 부글부글 끓었다. 실업 문제가 그렸고, 통계전변의 충돌 시위가 그렸고, 승례문 화재에, 알 만한 사람들의 자살사건, 환율등등이 그렸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책은 당장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안이 생겨났을 때, 냄비처럼 팔팔 끓어대는 성정(性情)을 가라앉히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으로 현실을 인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 해법은 교육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는가.

언젠가 일간신문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청년들이 모두 같은 잣대로 직업(職業)을 재단하고, 비슷비슷한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 인력 불균형 현상이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劃一的) 사고의 틀에 갇혀 버려진 결과는 아닐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옆집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내 아이의 적성(適性)이나 흥미(興味)와 상관 없이 일단 아이를 피아노 학원으로 보내고 본다.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잠깐 본, 검증 없는 어머니 니만 느끼는 아이의 천재성(天才性)을 맹신(盲信)하며 아이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는 제쳐놓고 일쑤다. 모두가 몰두하는 일에 자식을 몰아 넣고는 아이의 천재성이 발휘되기를 기다리며 안심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나도 그런 한국적인 어머니 덕

에 어린 시절 한때, 고전 무용과 발레를 잠깐 배운 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당시 내 주변 여자 친구들 사이에는 고전 무용이나 발레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었다.

돌아 보건대, 그때 나는 내가 배우는 영역에 대한 특기(特技)는 물론 그것에 대한 자각이론 없는 수동적(受動的)인 아이였다. 우리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열중하는 일에 나를 함께 묶어 놓고는 특별한 나를 교육시킨다는 사실에만 가치(價値)를 두셨던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하나의 '진주'다. 그 진주가 우뚝우뚝으로 영롱한 빛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아가 아이 안에 내재한 진주 같은 특성이 울곧게 자라고 단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한영란 상명대부속여고 교장

희망으로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올 한해, 우리 교육계가 모두 '조개 속의 진주 캐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 안내자로 그들 각자의 차별화된 가치와 재능을 손쉽게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주 캐기' 여행을 함께 떠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좌절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는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더 크고 영롱한 보석을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낼 수만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답답한 세상이 점차 밝아지지 않을까.

교육계의 이런 노력들이 희망이 되어 올 한 해 파란 하늘처럼 투명한 대한민국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정부조달등록업체' (Government Procurement Registered Company) featuring office furniture. The ad includes a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a large image of a modern office space with desks, chairs, and a round table.

Advertisement for '심플라인 사무용가구' (Simple Line Office Furniture). The ad features the company website (www.slgagu.com), a large stylized title, and an image of a modern office buil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yeonggi-do Pocheon branch is provided at the bottom.